

지역 소식통

김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인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과 더불어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수집오염예방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리인으로서의 자세와 근무요령 등도 교육했다.

남궁 길 환경과장은 "공중화장실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기반시설로 이번 관리인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129개소 농어촌

민박 일제점검 나서

완주군이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 완주군은 지난날부터 농어촌민박 일제점검에 나서 내달 12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내 단독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이용객에게 숙박이나 취사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완주군에 소재한 농어촌민박은 총 129개소로 동상면(38명), 운주면(36명)이 가장 많다. 이 두 곳은 대둔산이 인접하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계곡이 있어 휴양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뒤를 이어 오성한옥마을, 송광사, 위봉폭포가 자리한 소양면(18곳), 모악산, 경각산, 숲테마박물관이 있는 구이면(13곳) 순이다.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동점검반은 소방·안전사항, 운영자 실거주 여부, 농어촌민박 시설면적 기준 준수 여부, 농어촌민박사업자 표시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완주군, 하반기 승용·화물 총 111대 지원 예정

완주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내달 시행한다.

완주군의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총 사업비는 34억2,5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231대(승용 141, 화물 90)를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군은 하반기에 15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1대(승용 71, 화물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승용은 최대 1,350만원, 화물은 최대 1,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완주군내 사업장이 위

치한 법인·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7월 중 신청 접수를 받아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5000만원 부과

1기분 납부기한 오는 7월 1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019건, 35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한편 1월과 3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기분(7~12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 5%(연세액의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 대신인 홍보를 6월 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간편납부(☎142211)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갑)는 12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관광체육과를 시작으로 실시했다.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진행된 질의에서 의원들은 전통문화공원 운영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에 나섰다.

첫 번째 입을 연 이경에 의원은 "전통문화공원이 시설정비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완주의 스토리가 담긴 문화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부건 의원은 "놀토피어를 시작으로 한옥 숙박과, 전통문화체험관 등 운영이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해 빠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숙박시설에 대한 철거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순덕 의원은 "놀토피아, 한옥숙박관, 청소년문화체험관 등의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 들어났을 때부터 숙박과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었다는데 해당 부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추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의원은 "지난 22년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고 문제를 해결에 나서는데 걸린 시간이 약 2년여가 됐다"며, "앞으로 조 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의 핑계 아닌 핑계로 지지부진했던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인수인계로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하고, "환경정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성 의원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전통문화공원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불구하고, 활성화는 둘째치고, 홍보가 안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신속 집행 적극 추진과 어린이체육관 운영,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으며, 소양·구이권역 개발 방안과 관련해 관광체육과에서 총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유이수 의원은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링공원 조성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추경예산안 반영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파크골프장 운영, 추구메카 조성사업, 관광마케팅센터 운영,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대아동상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 및 경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갑 위원장은 "관광과 체육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며, 위상을 높인 만큼,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 더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12일 재매결연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상호 우호 관계를 증진했다.

서귀포시 중앙동-김제 백구면, 사랑나눔 감사수확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금량)가 12일 재매결연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진)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상호 우호 관계를 증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의 백구면 방문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합동 워크숍 이후 백구농협 종합미곡처리장을 방문해 견학하고 백구면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인 사랑 나눔, 감사 재배 사업의 수확 작업을 함께 참여했다. 백구면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특색사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지역 경로당과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나눔 행사를 계속해 왔다.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김

성진 위원장은 "백구면에 직접 방문해 사랑 나눔 감사 재배 사업에 함께 참여하며 재매결연도시인 백구면의 소외계층 주민들과도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금량 위원장은 "먼 걸음 해주신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김제시와 서귀포시 농특산물인 쌀과 감귤의 교류,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이 거리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권영세) 노인 돌봄 분과가 12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해 홍보활동 및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특화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달 말까지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는 김제 옛 관아를 시작으로 전통시장 일대에서 홍보 전단지 배포 및 거리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에게 노인 보호 서비스 제공과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권영세 공동위원장은 "노인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오 관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